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3 장



Abbaye des Gardiens ~ 오베르뉴 지방 ~ 프랑스 중부

가르디아양 수도원은 거대한 돌산 위에 자리 잡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수도원이었습니다.

프랑스 중부의 길들여지지 않은 땅. 수도원 아래에는 언덕 깊숙한 곳까지 복잡한 미로 같은 지하 묘지가 뻗어 있었다. 가르디아양 수도원의 탁발 수도사들 중 최고참인 이반 고구 수도사는 십여 년 전 수도원에 부임하면서 이 지하 묘지 관리를 맡았다. 그 시간 동안 이 거대한 무덤은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돌로 된 고행의 장소가 되었다. 거친 수도복 자락이 구불구불한 통로를 스치며 그가 서둘러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늘 똑바로 서서 아래로 향했다.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이처럼 깊은 곳까지 거의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돌벽에 드문드문 박혀 있는 마른 햇불들은 이전에는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역청질 통로에는 가지가 갈라지는 혈관이 없었고, 속이 빈 동맥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검은 벽돌길처럼 땅속으로 뻗어 있었다.

이반의 샌들 밑창이 부딪히는 발걸음 소리는 거칠고 돌로 깎인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아무런 메아리도 울리지 않았다. 그가 계속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차갑고 탁해졌으며, 쇠늑과 젖은 돌의 특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 좁은 돌벽은 길이 가파르고 좁아짐에 따라 점점 더 촘촘하게 모여들었다. 손전 등 불빛이 비춰지자 습기로 뒤덮인 통로 바닥이 더욱 선명해졌다. 한 손에는 손전등을, 다른 손가락으로는 반대쪽 벽을 더듬으며 이반은 미끄러운 화강암 길 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 지하 터널의 유일한 목적은 지하 담수 샘물을 끌어와 수도원 지하 묘지에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와인 양조 시기를 위해, 햇볕이 잘 드는 비탈면 아래 깊숙이 터널이 나 있었고, 그 터널은 수 세기 동안 자연 침식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불규칙한 돌과 표면으로 이루어진 넓고 거대한 동굴로 이어졌다. 마침내 햇볕을 비추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르디아 수도사들은 이 어둡고 외딴 곳을 우물 구멍이라고 불렀다. 깊은 돌로 둘러싸인 도랑이 동굴을 가로지르며, 빠르지 만 조용히 흐르는 지하 샘물을 흘려보냈다.

우물 구멍의 어둠 속에서 흐느낌이 터널 위로 메아리쳤다.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는 평생의 고통이 묻어났다.

또 한 번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지만, 마치 슬픔과 자존심이 고통스럽고 가련한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듯 억눌린 소리로 새어 나왔다. 숨 막히는 울음소리 뒤에는 가쁜 숨소리가 이어졌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슬픔의 폭발이 터져 나왔다. 그 악순환은 어둠 속에서 메아리치며 반복되었다.

그것은 패배한 왕의 애가와 억울한 과부의 울부짖음이 하나로 엮인 것이었다.

"거지?"

울음소리가 멈췄다.

“나사로야? 거기 있니?”

“저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수도사님. 저는 지금 물통을 채우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수도승이 들고 있는 타닥거리는 햇불의 빛에 의해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키가 크고 등이 넓고 가슴이 깊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깊고 푸른 그의 눈은 입가에 띠 쾌활한 미소와 대조를 이루었다. 천사의 후광처럼 머리를 장식한 단정하게 손질된 은발은 깔끔하고 촘촘한 희끗희끗한 수염과 조화를 이루었다. 등이 심하게 굽은 소년이 발치에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놓은 채 샘에서 일어났다. 그는 수도사와 비슷한 거친 천으로 짠 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 위로 깊게 뜬 두건을 쓰고 있었다. 같은 천으로 만든 가면, 즉 얼굴 가리개가 소년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눈이 있을 법한 자리에는 두 개의 동그란 구멍이 있었고, 작은 천 조각이 입을 가리고 있었다. 더러운 가면은 수도사의 두건을 두른 나병환자의 가면과 비슷해 보였다. 소년은 견습생이었지만, 다른 수도원 사람들과 달리 그의 숙소는 지상에 있지 않았다.

시종들과는 달리, 라자로는 수도원 경내 아래 지하 묘지에 있는 이반 수사가 마련해 준 아담한 방에서 살았다. 그 방에는 투박하게 만든 침대와 두꺼운 담요가 놓여 있었다. 그는 열세 살이었지만, 왜소한 체격과 가느다란 팔다리 때문에 훨씬 어려 보였다. 수도원 사람들은 라자로 자신과 이반, 오디노 수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이반 고구의 사생아, 즉 고구 가문의 일원이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아들이?”

“괜찮습니다, 선생님. 물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울고 있니?” 소년은 손가락으로 얼굴을 눌렀고, 눈 밑의 천은 습기로 검게 물들었다.

“모자가 미끄러져 내려가면 앞이 안 보여요. 고개를 돌리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입을 벌리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잠을 자도 미끄러져 내려가요. 모자가 귀를 덮고, 신발끈은 머리카락에 걸려요.”

“그럼 새 두건을 만들어 드려야겠군요. 제가 더욱 정성을 다해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 두건을 원하시나요?”

“이 두건에서 냄새가 나네요. 더 이상 세탁해도 깨끗해지지 않을 겁니다. 다음 두건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요, 수도사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다음 작품 만드는 걸 도와줘.” 이반은 몸을 굽혀 빈 손으로 라자로를 껴안았다.

“아들이,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그게 뭐예요?”

“필사실에서 동물에 관한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새들과 함께요?”

“네, 그 작품은 새에 관한 나뭇잎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새들을 그린 다채로운 그림들도 있죠.”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을까요, 수도사님?”

“그래, 가져다줄게. 새 책이야. 파리에서 온 거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어진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면 날이 밝자마자 돌려줘야 해. 오늘 저녁에는 책을 가져가도 좋지만, 먼저 청소부터 해야겠어.”

잠시 동안 라자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의 얼굴은 삼베로 가려진 채 수도승을 응시했다. 햇불 빛은 더러운 삼베 눈구멍 사이로 섬뜩할 정도로 아름다운 푸른 눈동자를 비추었다.

“수도사님, 여쭙봐도 될까요?”

“그러길 바라요.”

“내가 어른이 되면 못생겨질까?”

이반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바랐다. “내 말 잘 들어보렴, 아들이. 당신은 못생기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못생긴 것을 숨기려고 후드를 쓴 게 아니에요. 당신은 추함으로부터 당신의 아름다움을 숨기기 위해 후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추함은 아름다움을 악으로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두려워하는군." 수도승은 갑자기 일어서서 아이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주의를 준 후, 햇불을 손에 든 채 움푹 들어간 곳에서 나왔다. 작고 구부정한 형체가 어둠에 휩싸였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칠흑 같은 공간에서 이반은 아이를 찾아 그 앞에 쫓그리고 앉았다.

"양동이를 내려놓으렴, 애야."

이반은 발밑의 바닥을 더듬어 조약돌 하나를 발견하고는 주먹으로 쥐었다. 다른 손에도 똑같이 한 다음, 두 손을 모아 소년에게 내밀었다.

이반이 왼손을 들었다. "나사로야,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돌멩이."

이반은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이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사로야, 정말 확실하냐?"

"네가 돌을 줍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다가 네가 돌을 줍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지."

"돌멩이를 잡아!" 이반이 갑자기 말하며 돌멩이를 허공에 던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돌멩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말해 보거라,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느냐, 아들아?"

"그 돌."

"그런데 나사로야, 그것이 왜 네 손에 있느냐?"

"당신은 제가 그것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잡은 건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어."

"어떻게 더 많은 거죠?"

"그는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자, 이제 내게 돌을 던져 보거라." 이반은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끼고는 손을 빼냈다. "안 돼, 아들아. 내가 너에게 던졌던 것처럼 내게 돌을 던져 보거라." 라자로는 순종적으로 돌을 던졌다. 조약돌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사님. 다시 한번 던져야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라, 아들아. 들어보렴. 내가 왜 돌을 잡지 못했을까?"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돌은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줬을까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수도사님." 아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재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돌은 이미 말을 했단다! 네가 그 돌을 잡았을 때,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 돌은 온 세상에 네가 참 아름답다고 고백했지. 내 말뜻을 이해하겠느냐, 아들아?"

"네," 소년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네, 수도사님. 하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품에 안았다. "곧이야. 우린 곧 떠날 거야."

"얼마나 빨리요?"

"올해가 되기 전에 우리는 부르고뉴에 살게 될 거고, 넌 다시는 그 두건을 쓰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멋진 두건을 만들어 줄게. 그게 마지막이 될 거야."

"미구알과 타테우스도 새 두건을 맞출 수 있을까요? 개네 두건도 자꾸 벗겨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미구알과 타테우스는 둘 다 심하게 기형인 종자 소년이었지만, 나사로와는 달리 수도원 계단에 버려져 가르 디앙 수도사들에게 거두어져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그들 역시 눈구멍이 뚫린 나병 환자 같은 두건을 쓰고 보기 흉한 기형을 가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 소년은 모두 똑같은 외모를 가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두건으로 감싼 그들은 마치 작은 삼베 유령 삼인조처럼 보였을 지도 모릅니다. 이반은 종종 미구알과 타테우스를 지하 묘지로 불러 나사로와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나사로가 항상 지하 묘지에 갇혀 있었기에, 이반은 나사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세 소년에게 거구의 수도사 이반은 가면을 만들어주는 존재이자, 그들의 얼굴을 지켜준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반에게 있어서, 유령 같은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나사로가 웃음을 터뜨릴 때— 지하 묘지에서 그런 웃음소리는 보기 드문 일이었고, 예상치 못했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즐거움은 언제나 그의 괴로운 영혼을 달래주었다.

"새 모자도 만들어 줄게. 아들이, 네가 직접 새 모자를 씌워 줘도 되겠니? 그렇게 하고 싶니?"

"그러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반은 심호흡을 한 후 입을 열었다. "그들은 여기에 머물러야 해, 라자루스. 수도원은 그들의 집이야. 수도원은 그들에게 좋은 곳이야."

"오디노 수사님 오실 수 있나요?"

이반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었다. "라자로, 정말! 오디노 신부님 없이 떠나면 신부님이 우리를 쫓아와 염소로 때릴지도 몰라!" 아이도 웃었다. "신부님이 우리를 염소로 때리길 바라니? 아니, 아들이. 당연히 오디노 신부님은 우리와 함께 가실 거야."

"부르고뉴로요?"

"여기서 아주 아주 먼 곳으로 가야 해, 나사로. 자, 양동이를 내게 줘. 할 일이 많단다."

"제가 양동이를 나르겠습니다, 수도사님."

"안 돼. 나사로, 양동이를 내게 줘. 다음 양동이는 네가 들어도 돼."

이반은 횃불을 다시 가져와 소년에게 내밀었다. "네가 앞장서라."

"수도사님, 양동이가 무겁습니다. 제가 직접 옮겨야 합니다."

"횃불을 잡아라. 앞장서라. 나는 물통을 들겠다. 아들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라."

소년은 마지못해 손전등을 받아 길을 밝혔고, 이반이 걸어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의 뒤에.

라자루스가 복도의 화려한 벽 조각들을 닦는 데 거의 한 시간이 흘렀다. 조각 들은 수년간 햇 불 기름 연기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 사이에 깨끗한 물이 가득 담긴 양동 이는 인도 잉크처럼 끈적끈적한 검은 수프처럼 반쯤 변해 있었다 . 우물에서 물을 다시 가져 와야 했다. 라자루스는 양동이를 들고 복도로 내려가려다 옆 벽을 따라 검은 쥐 한 마리가 재 빨리 내려오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 클로디우스 수사가 뒤에서 소년과 부딪히면서 양동이 가 흔들리고 더러운 물이 소년의 옷자락 에 튀었다 .

“비켜!”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라자로를 지나쳐 긴 나무 막대기로 쥐를 쫓아갔다 .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사님.” 라자루스는 중얼거리며 복도를 따라 계속 걸어갔다. 옷에 묻은 얼룩을 내려다보면서 말이다. 그는 벽과 기둥 사이에 쥐를 몰아넣은 클로디우스를 따라잡았다. “이제 네놈을 잡았다.” 클로디우스는 굳어버린 쥐에게 말했다. 라자루스는 쥐를 보기 위해 수도사 뒤에 멈춰 섰다. 라자루스가 뒤에 서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쥐는 클로디우스는 쥐를 구석으로 몰아넣어 죽이려는 듯 천천히 막대기를 들어 올렸다.

라자로는 갑자기 물통을 떨어뜨려 바닥에 쏟아붓고, 그 바람에 틈새에 숨어 있던 쥐가 쏟아져 나왔다. 더러운 물이 클로디우스 수도사의 발과 옷에 튀었다. 깜짝 놀란 그는 소리를 지르며 돌아섰고, 물 에 흠뻑 젖은 쥐는 모퉁이를 돌아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다.

“너! 네가 일부러 그랬잖아!” 그는 나사로를 꾸짖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사님.” 라자로가 대답했다. 그는 물통을 바로 세우고 무릎을 꿇은 후 수도사의 샌들에 묻은 물을 황급히 닦아 냈다. 클로디우스가 그에게 곤봉을 들어 올리 자 라자로는 매를 맞을 각오를 했다.

“클로디우스!” 이반 수사가 복도를 따라 씩씩거리며 달려왔다. 클로디우스는 황급히 지팡이를 내리고 그에 게 말했다. “그가 제게 더러운 물 한 양동이를 쏟아부었습니다!”

“뭐라고?” 이반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라자루스 와 클로디우스의 옷에 묻은 엉망진창을 훑어보았다. 가운.

"쥐를 궁지에 몰아넣었는데, 그 녀석이 쥐를 보호하려고 나에게 더러운 물을 뿌렸습니다!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반이 그에게 물었다. “나사로, 이게 사실이나?”

“수도사님, 제가 양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요?"

“네, 수도사님.” 라자로는 고개를 숙였다.

“봐! 봐! 내가 정확히 그만큼 모았잖아!” 클로디우스가 소리쳤다.

“나사로라고요? 왜요?” 이반이 그에게 물었다.

“살인하지 말라, 수도사.” 라자루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클로디우스는 콧방귀를 끼고 역겨운 듯 눈을 굴렸다.

이반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계명은 쥐가 아니라 사람 에게 적용되는 거 잤어요?"

라자로는 발을 꼬지락거리며 잠시 멈춘 후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님, 하지만—"

이반이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훌륭한 수도사에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클로디우스 수사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라자로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반이 그들 사이로 나서서 라자로에게 말을 걸자 클로디우스는 다시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너희의 속죄는 이것이니, 깨끗한 물 한 양동이를 길어와서 새겨진 벽을 닦는 것이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정말이군요, 수도사님.” 라자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양동이를 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클로디우스는 입이 떡 벌어졌다. "그 이후로 그에게 벽 청소를 시켰군요!"

클로디우스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큰 이반은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으르렁거렸다. "무슨 일이야, 이 자식들아?"

내 지하 묘지에 쥐 쫓는 것 말고 무슨 권리가 있단 말인가? 잘 들어라. 자네는 수도원 경내를 관리 하고 나는 그 아래를 관리한다. 자네는 자네 종자들을 훈육하고 나는 내 종자들을 훈육하겠다! 자, 이제 당장 떠나라, 클로디우스!

꾸중을 들은 수도사는 복도를 따라 씩씩거리며 황급히 걸어갔다. "이반, 내가 그 아이를 혼내주겠다! 이제 원장님께 보고하겠다!"

"부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내 지하 묘지에서 쥐를 쫓고 있다는 사실, 즉 다른 사람을 돌보는 대신 쥐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주십시오."

"네 거야!" 이반이 소리쳤다. 클로디우스는 대답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반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 후, 그제야 천천히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하지도 않은 내기에서 이긴 사람처럼. 그는 어깨를 뒤로 젖히고 두 손을 등 뒤로 깎지 껴다.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자존심 강한 죄수처럼. 그리고 는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클로디우스는 심술궂은 사람이었다. 심지어 수도원장조차 그를 거의 용납하지 않았다. 다행히 이반에게는 보니히 수도원장이 그를 친아들처럼 여겨주었다. 수도원장의 눈에는 이반이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반과 친분을 쌓는다는 것은 곧 수도원장과 친분을 쌓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지하 묘지의 와인 저장고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었다. 반대로 이반을 화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사로, 미겔, 타테우스와 같이 기형으로 저주받은 연약한 종자 들을 학대하는 것이었다.

~*~

라자로스는 이미 오래전에 해야 할 일을 끝냈다. 이반은 그를 화려한 새 그림이 그려진 삽화가 있는 책에서 떼어내 침대에 눕히고, 지하 묘지에 타오르는 몇 개의 횃불을 끈 다음, 수도사 기숙사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저녁 시간을 보냈다. 가르디앙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잠자리에 들었고, 달빛이 비치는 수도원 경내에는 늦은 시간까지 정해진 노동을 하는 몇몇 어둡고 음침한 수도복 차림의 수도사들만 남아 있었다.

델론 오디노 수사는 수도사 기숙사의 작은 옆문을 통해 나와 안개 자욱한 안뜰을 가로질러 밤마다 즐기던 은밀한 시간을 보내러 갔다. 그는 지하 묘지 계단에 들어서서야 횃불을 켜다. 몇 잔의 술을 마신 후, 그는 와인 저장고에서 졸린 라자로와 합류했다. 두 사람에게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그 긴장감과 금지된 스릴을 즐겼다. 라자로는 이반이 떠난 후에는 방을 나가야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술에 대한 그의 약점이 수도원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오디노는 해가 진 후에는 지하 묘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었다.

오디노는 작업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채 지하실 벽에 기대어 있었다. 숙성된 와인 통과 찌꺼기가 담긴 통들이 그의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공기는 발효된 과일과 끈적하고 자극적인 냄새로 무겁게 가득 차 있었다.

“아, 라자로, 내 아들이야. 자고 있는 줄 알았네. 들어와! 말해 봐!” 오디노는 반쯤 비어 있는 잔을 흔들며 씩 웃었다.

이반을 제외하면, 오디노는 그 소년을 진정으로 아는 수도원의 유일한 수도사였다.

여러모로, 통통하고 불이 발그스레한 그 수도사는 나사로에게 삼촌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했다.

“내가 오고 있다는 걸 몰랐나?” 오디노는 술에 취한 입술로 말을 더듬거리며 물었다.

“뭐라고요?” 라자로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너와 이반 과 함께 수도원 밖으로 나가자.”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나 없이 떠나면, 내가 너희 둘을 쫓아가서 염소로 때려줄 거야.” 그들은 함께 웃었다. “왠지 모르게 이 수도원이 그리울 것 같군.”

“그럼 와인은요?” 라자로가 물었다. 오디노는 못마땅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사로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가는 곳마다 물건을 만졌고, 마치 어린아이의 놀이처럼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저 제자리를 맴돌기만 했다.

마침내 오디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난 며칠 동안 네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피는 뜨겁구나. 이 지하 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 그렇지?”

“책 밖의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새들, 살아있는 새들이 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책 속의 새들 말고 말이죠.”

네가 내게 데려온 죽은 놈."

오디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그 물건 가지고 있어?"

"내가 그것의 날개를 펼쳐보니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것을 싸서 지하실 중 하나에 안치했다. 수도사는 이반이 우리가 부르고뉴로 언제 출발할지 알려줄게요?"

"곧이야, 애야. 곧."

잠시 침묵 후, 라자로는 "수도사님, 여쭙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물론."

"수도원을 떠나는 게 조금도 걱정되지 않나요?" 라자루스는 그의 얼굴에서 말 이상의 감정을 찾으려 애썼다.

"일상적인 패턴이 지루해졌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도원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그날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자로는 두건으로 얼굴을 숙였다.

"물론, 넌 모르지. 네가 아는 건 이 지하 묘지의 벽과 똑같은 지루한 일상뿐이니까.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넌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네 아버지 도 잘 알고 계시지. 아버지도 내가 오래전부터 봐왔던 걸 보고 계셔. 마치 새장 안에서 파닥거리는 새처럼 말이야."

"무슨 새?" 라자로는 지하실을 둘러보았다. "어디에?"

오디노는 "당신 이 새이고 수도원은 새장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라자루스는 오디노 옆 탁자에 기대어 서서 말했다. "수도사님, 이 와인은 냄새처럼 맛도 괜찮습니까?"

"훨씬 낫군."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멋지게 건배한 후, 투박한 나무 잔에 담긴 술을 깊게 마셨다.

"냄새가 고약하네. 맛도 고약할 것 같아."

"술 몇 잔 마시고 나면 맛은 신경 쓰지 않게 되지." 오디노는 소매로 입가를 닦으며 빈 잔을 소년에게 내밀었다. "똥똥하고 지친 바보를 좀 도와주렴, 애야." 라자루스는 잔을 받아 들었다.

"수도사님, 왜 다른 수도사들보다 술을 더 많이 드십니까?" 라자루스가 술통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디모데전서 23장 5절 말씀인가요?" 오디노가 급히 물었다.

소년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이제 물은 마시지 말고, 위장도 안 좋고 자주 몸이 약하니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라틴어로!"

나사로는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Noli adhuc aquam bibere sed vino modico utere propter Tomatoum tuum, et presents tuas in irimitates."

오디노는 웃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손가락을 튕겼다. "저 통 말고! 이거!"

"얘야," 오디노가 다른 술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라자루스는 더 가까운 술통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잔을 채웠다. "다 똑같은 건가 보군? 이 술통 말이야, 수도사?"

나사로가 돌아와 오디노에게 잔을 주자, 수도사는 그에게 "누가복음 39장 5절 말씀인가요?" 라고 물었다.

소년은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옛것을 마신 사람은 곧바로 새것을 원하지 않아요. '옛 것이 더 낫다'고 말하죠."

오디노는 너무 크게 웃어서 지하실 바닥에 와인을 쏟았다. 라자로스는 어리둥절한 개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는 오디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자 나사로가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라자루스. 늘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수도사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말을 더듬었다. "제가 보기엔 당신은 작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군요."

당신의 가면 아래에는 아주 작은 책들이 가득한 필사실이 있고, 당신은 코로 그 책들의 페이지를 넘기죠."

"수도사님, 저는 작은 책 같은 건 없어요." 라자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디노는 그의 진지한 대답에 웃었다. "그런데, 얘야, 어떻게 그렇게 모든 단어를 외우는 거니?"

"저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 읽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수도원에서는 아무도, 제가 아는 한 당신 외에는 그런 사람 이 없습니다. 그 마법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기억할 뿐입니다, 수도사님."

"당연하지, 얘야." 오디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마음의 깊이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지."

"당신처럼 특별한 축복을 받으셨군요." 그는 다시 한번 라자로에게 건배를 하고는 잔에 남은 포도주를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는 라자로에게 포도주를 다시 채우라고 잔을 내밀었지만, 라자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몸을 돌려 지하실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라자루스는 오디노에게 돌아섰다. "수도사님, 누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명쯤 되는 것 같군요."

오디노는 마치 의자에 불이 붙은 것처럼 작업대에서 황급히 내려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벽으로 달려가 입가에 묻은 와인을 깨끗이 닦아내고는 술잔을 통 뒤에 숨겼다. 라자로는 반대쪽 벽으로 가서 햇불을 거치대에서 빼내 기름통에 담근 다음 지하실 안의 모든 불빛을 꺼뜨렸다. 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

어둠 속에서 오디노는 라자로를 마지막으로 본 방향으로 팔을 휘저으며 찾았다. "이리 와, 얘야. 나를 인도해 줘." 오디노가 속삭였다.

"수도사님, 어디로 안내해 드리려는 겁니까?"

"쉿— 말조심해. 여기서 나가게 해 줘. 아무것도 안 보여." 오디노가 쉿 소리를 내며 말했다.

조바심을 내며 허공에 손을 뻗어 라자로를 찾았다.

"어디로 가고 싶니?" 라자루스는 오디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물었다.

"천사의 불꽃이여! 어디든 좋으니, 얘야! 여기서 나 좀 꺼내줘!"

"그럼 납골당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 납골당으로! 당장!" 오디노가 쉿 소리를 내며 말했다.

라자루스는 오디노를 데리고 와인 저장고에서 나와 어두컴컴한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여기요, 수도사님." 그는 속삭이며 오디노의 손을 두꺼운 철제 손잡이로 이끌었다. 수도사는 무거운 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안으로 들어가! 서둘러!"

"수도사님, 저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그의 등 뒤, 무덤 안에서 들려왔다.

"라자루스," 오디노가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면서도 얻은 것은 이토록 적을 수 있지?"

"수도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신은 머릿속으로 페이지를 읽을 수 있으면서도 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수도사님께서 어디로 가시려는지 몰랐습니다."

"아! 그렇다면 당신은 저를 이해 하시는군요."

"당신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지하 묘지 문이 열리자 오디노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조용히 해, 꼬마야. 그들이 오고 있어."

세 명의 수도승이 횃불과 기름통을 가지러 터널 아래로 조금 내려갔다. 그들은 서둘러 다시 떠났다. 지하 묘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라자로와 오디노는 납골당에서 빠져나왔다. 라자로를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술에 취한 오디노는 벽을 따라 지하 묘지 밖으로 나와 기숙사로 돌아갔다.

다른 곳, 수도사 기숙사의 아담한 2층 방에서 이반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좁고 열린 창문으로 부풀어 오른 달빛이 방 안의 소박한 물건들을 비추주었다. 침대 위 벽에는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책들이 가득했으며, 이반의 소지품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날갯짓 소리가 어둠 속 정적을 깨뜨렸고, 창턱 위에는 빛나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차가운 눈으로 이반을 응시하고 있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서늘해졌고, 이반의 입김에는 김이 서렸다. 그때 까마귀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벌거벗은 여인으로 변신했고, 맨발로 바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루시파엘은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이반의 침대 발치에 멈춰 섰다. 새까만 눈과 교활한 미소로 그를 훑어보았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군." 그녀는 속삭였다. 검은 손톱으로 그의 몸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계속 자렴, 내 사랑." 이반은 관능적인 꿈결에 잠겨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의 씨앗이 역사를 바로잡을 거야—널 타락시키면서 말이지."

"똑같아요." 그녀는 그의 이불을 살짝 걷어 올리고 옷을 풀어헤친 후 그를 어루만졌다. "난 당신 아래에 눕지 않겠어요." 그가 신음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그녀는 말에 올라타 가엾은 말을 몰았다. 이반의 입김은 질주하는 짐승의 콧김처럼 거세졌고, 죄악에 사로잡힌 그의 눈꺼풀은 마구 휘둘러졌다. 악마가 뿌린 그 짧은 순간의 욕정 속에서, 마치 그 후 수많은 수도사들이 고통받았듯이, 또 한 명의 가르 디앙 수도사가 은총을 잃었다.

~*~

언제나처럼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수도원의 몇몇 고위 수도사들에게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특히 전날 밤 와인 저장고에 다녀온 오디노 수도사에게는 더욱 이른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깨어나기 훨씬 전부터 고위 수도사들은 말들을 돌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해야 했다. 고위 수도사 이반은 새벽녘에 수도원 지하 묘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임무를 맡았다. 그의 종자 라자루스도 함께했는데, 그는 지하 묘지에 있는 수많은 햇불을 만들고 교체하고, 켜고 끄는 일을 도맡아 했다. 이 두 사람 덕분에 지하 묘지는 매일같이 드나드는 수도사들과 종자들의 왕래에도 불구하고 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불안했지만 까마귀 영혼이 전에 나타났음을 알지 못한 이반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다. 침대 밑에서 천으로 덮인 나무 그릇을 꺼냈다. 전날 밤에 손대지 않은 식사였다. 불타는 햇불과 그릇을 들고 기숙사를 나선 그는 어두컴컴한 수도원 경내를 가로질러 지하 묘지 입구가 있는 긴 건물로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모퉁이를 돌아 나무 문을 활짝 열고 돌계단을 내려갔다. 햇불을 높이 든 채, 그의 걸음걸이는 길고 신중했으며, 거친 옷자락은 햇불 빛에 마치 열린 창문의 바람에 흔들리는 소박한 커튼처럼 반짝였다.

수도승이 고대의 구불구불한 터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조각된 돌기둥 사이 벽면에는 아치형 움푹 들어간 곳들이 나타났다. 움푹 들어간 곳의 벽면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기괴한 형상들이 있었다. 그 기묘한 그림들은 검게 그을린 채 서 있었다.

수 세기 동안 피어오르는 햇불 연기는 인간과 짐승이 기괴하게 뒤섞인 형상을 그려냈다. 새나 개의 머리를 가진 기사들이 있었고, 사람의 얼굴을 한 악마와 맹수들이 있었으며, 끔찍한 생김새와 털로 덮인 인간의 팔다리를 가진 괴물들이 있었다.

수백 개의 형상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각각의 형상에는 박쥐 처럼 빠로 된 날개가 한 쌍씩 달려 있었다. 섬뜩한 벽 조각들은 오직 저주받은 자들과 정신 나간 자들만이 감상할 수 있을 법한 기괴한 형상들의 집합체였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조각들은 사라지고 매끄러운 벽이 나타나는데, 그 벽에는 무언가가 박혀 있었다.

나무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 문들은 교황청의 특권층 인사들, 즉 전직 수도원장, 하급 평의회 수도사들, 심지어 몇몇 주교와 다른 귀족들의 미라 유해가 안치된 지하 묘실로 통하는 입구였다. 수도사는 한 갈래길에서는 오른쪽으로, 다른 갈래길에서는 왼쪽으로 향했다. 이제 지하 묘지는 사방으로 굽이굽이 뻗어 나가는 미로 같은 터널로 이어졌다. 이반은 돌덩이와 조각된 지하 암석으로 이루어진 미로 속을 익숙한 길을 헤쳐 나갔지만, 그의 깊고 푸른 눈은 어둡고 불안한 바다에 잠긴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좁은 입구 옆에 멈춰 섰다. 벽감에 햇불을 고정시킨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나사로, 음식을 더 가져왔네. 먼저 먹고 나서 햇불을 켜자." 그는 옷자락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밀랍 심지를 꺼내 햇불에 불을 붙였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뒤집힌 참나무 통 위에 놓인 기름등잔에 심지를 댔다. 희미한 불빛이 작은 방을 채우며 벽에 붙어 있는 작은 나무판자 침대를 드러냈다. 그 위에는 즐린 나사로가 두건을 벗고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다. 소년은 하품을 하며 굵고 무딘 송곳니를 드러냈다.

그의 얼굴 생김새는 또래 아이들과 비슷했지만, 치아와 귀는 달랐다. 그의 귀는 마치 털 없는 개와 엘프의 귀를 합쳐놓은 듯했다. 그는 숱이 많고 형클어진 검은색 생머리를 하고 있었고, 짙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남색 눈동자 위로 굽은 턱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입을 다물고 귀를 막고 있어서, 어쩌면 다른 소년으로 착각하기 쉬울지도 몰랐다. 라자루스의 외모는 혐오스럽기보다는 기묘했는데, 신비 로우면서도 야성적이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험령한 로브가 그의 가느다란 어깨를 덮고 발목까지 내려와 있었다. 거친 삼베 양말이 발을 감싸고 있었는데, 밑창은 터널 바닥에서 밟혀 나온 때로 검게 변해 있었다.

이반은 순간 얼어붙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널빤지 침대 쪽으로 성큼 성큼 다가가는 바람에 잠에 취해 있던 소년은 벽에 바싹 기대어 움찔했다. "다시 써라!" 수도승이 매섭게 명령했다. "당장!" 이반은 그릇을 짹그랑 소리를 내며 내려 놓고 방을 두리번거렸다. "어디 있지? 너는 항상 두건을 써야 한다, 꼬마야! 내 말 알아듣겠느냐? 항상!" 수도승의 멍한 시선은 사라지고, 라자로가 보기에 분노가 아닌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반의 엄한 꾸지람에 소년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순종적으로 침대에서 두건을 집어 들고는 투덜거리며 마스크를 머리에 썼다. "수도사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두건이 돌아가 숨을 막는 것 같아요.

이반은 그의 옆에 앉았고, 라자루스는 이반이 두건 뒤쪽의 끈을 조일 수 있도록 고개를 돌렸다. "상관 없어. 항상 쓰고 있어야 해. 필요하다면 천 조각을 입 위로 올려 가려도 좋지만, 얼굴 가리개는 그대로 뒤야 해."

“수도사님, 새 두건을 써봐도 될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계속 꿰매고 있거든." 이반은 가죽끈을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가며 주기적으로 조였고, 라자루스는 눈에 맞춰 구멍을 정렬했다.

"곧 준비될 거야." 이반이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을 조금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자, 끈을 꼭 조여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아, 그렇구나. 머리카락 때문에 그랬나 보네."

"새 두건을 완성하면 술을 좀 쳐주도록 하죠." 수도사는 끈을 단단히 묶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자, 다시 꼭 묶었지. 다시 풀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라자루스. 자, 여기. 먹어." 이반은 그릇을 가져와 라자루스의 손에 쥐여주었다.

수도사는 문간으로 가서 기대섰다. 그는 마치 소년을 지키는 듯 이따금씩 방 밖을 내다보았다. 다가 다시 라자로를 바라보았다. 염소젖에 적신 빵 조각들이 두건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 보았다. 잠시 후 이반이 벽에서 햇불을 꺼냈다. "햇불을 감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면 와인 저장고에서 만나요." 이반은 문간에서 나오며 말했다.

나사로가 그를 불러 "수도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반은 "무슨 일이나, 아들이?" 라고 대답했다.

“게이트스톤은 왜 비명을 지르는 걸까?”

“비명?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마치 바로 이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나사로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그냥 내버려 둬. 너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세요. 다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새, 나무, 아니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크게 굽이치는 강 같은 것들요. 천사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천사들은 충분히 순수하잖아요. 우리 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그러겠습니다, 수도사님.”

이반이 떠나려 할 때 소년이 다시 그를 불렀다.

"새들이 천사들처럼 높이 날 수 있을까요? 천국까지도요?"

“안 돼, 나사로.” 수도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천국은 사람을 위한 곳이지, 땅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를 위한 곳이 아니야.” 그러고는 덧붙였다. “다시는 그 문들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수도사님, 제가 인간인가요?”

“너는 아직 어린애란다. 배울 게 많단다. 언젠가는 말이지. 질문은 그만하고, 나사로. 밥이나 먹어라.”

그리고 내가 문설주에 대해 말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오. 내 말 이해했소?

“네, 수도사님.” 이반이 사라지자 라자루스는 다시 음식으로 시선을 돌렸다.

~*~

지상, 텅 빈 대성당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검은 딱정벌레 한 마리가 좁은 틈에서 나와 돌바닥을 가로질러 성소를 향해 재빨리 움직였다. 아침 달빛의 마지막 빛을 뚫고 성가대석을 가로질러 제단이 놓인 석판에 부딪혔다. 바닥과 석판 사이에는 좁은 틈이 있었고, 딱정벌레는 날개가 달린 구부정한 등이 들어갈 만한 입구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얼어붙은 듯 몸을 뒤집었다. 곤충은 입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출구가 있었고, 그 틈새에서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어둠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기묘한 딱정벌레는 저 아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칠흑 같은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치 빛처럼 돌바닥 위로 곧장 퍼져 나갔지만, 그것은 빛의 정반대였다. 딱정벌레가 떨어진 곳은 아무것도 없었고, 달빛 그림자조차도 그에 비하면 밝게 빛났다.

이 불길한 어둠이 성소 가장자리까지 이르자, 제단 돌 아래에서 끊임없이 쉼 없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마치 화산 분출구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 소리는 공기를 가득 채웠다. 매캐하고 유황 냄새가 나는 물질이 공기를 오염시켰다. 열은 가스가 틈새에서 새어 나와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고,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며 소용돌이쳤다. 움직이는 덩어리는 위로 솟구쳐 오르며, 비행 부벽 기둥 사이를 휘감고 나선형으로 휘감으며, 뒷에 걸린 파리처럼 천장을 맴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급강하하여 기름지고 역겨운 구름 줄기를 성소에 뿌리고는 성직자 탈의실 이 늘어선 복도 아래로 사라졌다.

탈의실 한쪽 구석, 바닥에 무겁게 엷힌 구름이 열어지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어두운 덩어리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뼈, 인대, 조직, 피부가 굳어지면서 성당의 고요한 복도를 찢는 듯한 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일은 그 이후로도 백 번도 넘게 반복되었다. 또 다른 그로테스크가 탄생했다. 프랑스 거석의 존재로 인해 또 다른 엘조의 자식이 태어난 것이다. 그 아이는 고대의 짐승 같은 종족으로, 지옥의 새벽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인간과 창조의 기형을 낳을 만큼 사악한 천사의 육체적 결합으로만 태어났다. 그로테스크는 거의 인간의 모습을 한 여자아이였으며, 크기와 체격은 여섯 살이나 일곱 살 정도의 여자아이와 비슷했다. 그녀는 커다란 박쥐의 날개와 같은 살과 뼈로 된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에 남색 눈을 가진 그녀는...

요정 같으면서도 개처럼 생긴 귀 한 쌍을 가진 그녀의 기묘한 모습은, 어쩌면 기사 소년 나사로의 어린 시절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일지도 모른다.

~*~

하늘을 나는 새의 시점에서 보면 대성당과 수도원은 십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

수직으로 뻗은 중앙 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펼쳐진 날개 모양의 구조물이 교차하는 형태였다. 외부에는 세 쌍의 이중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십자가 아래쪽에 위치한 정문이었고, 나머지 두 개는 각 날개의 가장 바깥쪽에 있었다. 성소는 십자가 중앙,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대한 석조 건물이었다. 고해소와 참회실, 태형 집행실은 십자가의 머리 부분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성구실, 제의실, 그리고 실용적인 방들은 십자가의 왼쪽 팔 부분에 자리했고, 계단식 좌석이 있는 기도실은 오른쪽 팔 부분을 이루었다.

새벽녘의 어둠은 가차 없이 흘러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단조로운 종소리가 온 들판을 뒤덮기 시작했다. 수도원의 거대한 종탑은 기도 와 노동으로 가득한 또 다른 하루를 알렸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수도사들의 긴 행렬이 얇은 안개를 헤치고 성당의 기도실을 향해 나아갔다. 바깥 문고리가 짙장거리는 소리가 성당 안의 고요한 지하실 같은 분위기를 깨뜨렸다. 성스러운 행렬을 이끄는 복사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로를 시계추처럼 앞뒤로 흔들며 길을 냈다. 넓은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계단식으로 배열된 나무 좌석들이 마주 보고 있었다. 맨 앞쪽 좌석은 바닥과 평평했고, 뒤쪽 좌석들은 벽에 붙어 있었다. 뒷벽에 가장 가까운 지정된 손님석을 제외하고는 각 좌석은 오직 한 명의 수도사만을 위한 것이었다. 사제들의 행렬이 갈라지면서 각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이반과 오디노 수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 같은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몇 자리쯤 지나자 이반은 멈춰 서서 클로디우스와 그레빌 수사에게 속삭였다. "쥬 더 찾았나, 클로디우스?" 클로디우스는 반항적인 눈빛으로 대답했다. 이반은 비웃으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오디노는 걸음을 멈추고 그레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 사람이 그레빌 수도사를 여기서 찾아냈군!" 심술궂은 수도사는 오디노의 손을 쳐냈다. 오디노는 낄낄거리며 이반을 따라갔고, 그레빌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으르렁거렸다. "오디노, 네놈의 날이 곧 올 것이다!"

클로디우스는 턱을 치켜들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레빌에게 "신경 쓰지 마라. 수도원장이 없더라도 우리는 저 두 사람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위로 했다.

몇 자리 떨어진 곳에 그가 앉았다. 아래쪽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린 이반은 활짝 웃었다. "니콜라스!" 햇볕에 그을린 건장한 젊은 수도사가 고개를 들어 그에게 미소 지었다. 몇 달 동안 수도원을 떠나 있던 니콜라스 수도사는 인근 마을 무라트의 마을 사제로 남아 있었다. 니콜라스가 말했다. "탕자가 돌아왔군!"

이반은 껄껄 웃으며 물었다. "무라트 사람들은 잘 지내시나요?"

"그들은 지도가 절실히 필요해." 이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오디노가 다가오다가 니콜라스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오디노가 급히 앞으로 달려나갔고, 니콜라스는 일어섰다. 두 수도사는 서로를 껴안았다. "다시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니콜라스가 대답했다.

오디노는 그의 귀에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구두장이의 미망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니콜라스는 한숨을 쉬며 바닥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형님, 저 여자는 제 믿음을 시험하는군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굳은 표정을 짓자 그들은 킁킁거렸다. 두 수도사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 앉았다. 수도원 탑의 종이 울리자 모두 조용해졌다.

맨 앞줄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 수도사 한 명이 일어나 통로 중앙에 놓인 연단으로 다가갔다. 연단 위에는 펼쳐진 커다란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그는 연단을 돌아 공손히 허리를 굽혀 책에 입맞춤했다. 목을 가다듬고 손가락으로 책갈피를 잡은 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선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자, 바로 그가—"

"끼익!" 사제는 강단을 움켜잡고 몸을 돌려, 공기를 가르는 끔찍한 목소리의 근원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백 쌍이 넘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것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 성소를 향해 날아갔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의 모든 승려들이 그 소리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모두 똑같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보니히 수도원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벌떡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하급 평의회를 제외 한 모든 수도사들은 당장 기숙사로 돌아가라!" 니콜라스와 다른 백여 명의 괴로움과 분노에 찬 수도사들은 아침 기도를 중단하고 벌떡 일어나 문으로 몰려갔다. 수도원장은 그들에게 소리쳤다.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각자의 방에 들어가 엎드려 참회 기도를 반복하라!" 이반, 오디노, 클로디우스, 그레 빌을 포함한 서른세 명의 고참 수도사들만 남았다.

마지막 사제가 나가 성당 문을 닫자, 보니히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나머지 신도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분노가 혐오감으로 뒤틀렸다. 더 큰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니히의 불타는 듯한 눈빛이 수도승들의 줄을 훑어보자, 고개를 쪽 내밀던 수도승들은 고개를 떨구고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닥을 황급히 내려놓았다.

“너희 중 누가 책임이 있느냐? 자백하라!”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다. 보니히는 몸을 돌려 연단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좋습니다.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들은 곧바로 복종했다. 뒤따르는 일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그로테스크가 태어날 때마다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도 수없이 그럴 것이다. 하급 평의회 수도사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계단식 좌석에서 내려와 중앙 통로에 모였다. 각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손을 모았다.

성소 앞에 선 세 조사관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문을 활짝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승려들은 조심스럽게 어두컴컴한 안으로 들어갔다. 승복 몇 벌을 제외하고는

천으로 덮인 조각상, 받침대, 그리고 다른 종교 유물들이 있었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쉬익!” 그들의 시선은 번쩍 위로 향했다. 날개를 펼치고 험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몽툰한 개 이빨 같은 송곳니를 드러낸 기괴한 형체가 천장 근처 돌턱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분노에 찬 듯한 낯설고 이국적인 말들을 쏟아냈는데, 그것은 천사들의 언어였다.

단상 너머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삭발한 머리들을 노려보며, 주지 스님은 몸을 돌렸다. 그는 눈앞의 책에 시선을 고정했다. 날카로운 비명과 낮은 언어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분노에 목과 귀가 붉게 달아오른 채 책장을 넘겼다. 여섯 명의 수사관 중 한 명이 턱의 상처를 움켜쥔 채 돌아왔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스며 나와 바닥에 흠뻑 젖었다.

"나가십시오." 수도원장이 대답했다.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수도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성당 문 쪽으로 피를 흘리며 걸어갔다. 성소 안에서는 비명과 절규가 끊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의 두 동료가 다가와 몸부림치는 그로테스크를 붙잡고 있었다.

수도복을 입은 그녀는 수도승 복장을 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연단에서 그들을 멈춰 세웠고, 그들은 그녀를 바닥에 눕혔다.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천사들을 비난하는 장황한 연설을 계속했다.

보니히는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찌르며 그녀와 신도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려가라! 네 백성이 스스로 타락하였도다!" 그의 분노는 천장의 부벽을 뚫고 울려 퍼졌다. 수도원장은 사제들의 침울한 얼굴을 슬쩍 쳐다봤다.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표정이 그를 감쌌고,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드러내듯 변해갔다. 그는 조용히 책을 닫고 표지를 두드린 후, 책을 응시했다.

그는 연단에서 책을 책 잡아 높이 들어 올린 후 던졌다. 책은 수도사들 사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연단에 몸을 숙인 그는 그로테스크의 항의가 그의 고함치는 소리 사이사이에 끼어들자 고함을 질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그 자손 삼사 대까지 갚으리라!"

보니히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마치 제멋대로인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처럼, 이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수도원장으로서 그들의 실패는 곧 자신의 실패였고, 그들의 죄는 곧 자신의 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룩하든 아니든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고 수도원장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담이 여자의 허리를 갈망했듯이, 정욕은 악한 마음에서든 순수한 마음에서든 정욕일 뿐이며, 꿈틀거리는 뱀이 아담의 허리를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원숭이에서 수도승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욕망은 창조의 청사진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그로테스크는 인간이 자신의 신앙의 법칙을 희생하더라도 창조의 법칙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라는 보니히의 믿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주지승은 연단을 돌아 그들 사이로 걸어갔다. "너 말이야," 그는 한 수도승을 발로 차며 말했다. "이 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깜짝 놀란 사제는 "모르겠습니다, 수도원장님.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것들은 전부 네 거야." 보니히가 그를 꾸짖었다. "넌 평의회 수도사잖아!" 그는 다른 쪽으로 옮겨가며 말했다. "너!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두 번째 사람은 "대성당 꼭대기 말인가요?" 라고 대답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원장이 물었다.

"꼭 찾어요."

"그렇군요.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혹시 노트르담 성당일까요?"

"아,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세 번째 수도사가 입을 열었다. "주지사님, 북쪽에 성스러운 땅, 즉 새 대성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보니히는 몸을 돌려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안 돼! 더 이상 그들이 공의회 수도원 경내를 떠나게 놔두지 마! 우리는 교황청의 모든 수도회에 가리디앙과 칸첼로가 이 선물들을 조각하는 뛰어난 석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신시켰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좋겠어. 아니, 선물이 아니야. 죄악이야! 너희들의 죄악이 돌에 봉인되어 있어! 이제 그만!"

수도승은 보니히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눈을 떼었다. 보니히는 몸을 돌려 그들 사이를 서성이며 말했다. "이것만 챙겨라. 저 조각상들은 너희 죄악의 영원한 기록일 뿐이다. 돌에 새겨진 기록은 너희가 지옥에 갈 정당한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석의 여인 유령은 —"

순식간에 이반의 머릿속에는 온갖 육욕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루시파엘과의 꿈속 결합에 대한 왜곡된 상상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한밤중의 밀회가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매혹적이지 않나요? 성숙하고 적극적이잖아요? 아, 정말 기쁘게 해 주고 싶어 안달이 났네요—"

이반은 묶여서 몸부림치는 그로테스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으며, 자신이 그 창조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리고 네가 파멸을 자초할 때, 아마도 네 음욕의 음녀 영이 너를 맞이할 것이다."

지옥에서, 그리고 예전처럼 당신을 위로해 줄 그녀.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섬뜩하고 사악한 매력으로 당신을 유혹할 필요가 없으니,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 마치 끔찍한 뱀이나 용과 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자 유령이 정말로 악마 그 자체라면? 오, 정말이지, 어쩌면 그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위로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당신의 몸을 더럽히고, 영원히 당신을 마음대로 할지도 모릅니다. 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상의 방법들, 수많은 고통들. 당신은 그것들을 셀 수나 있을까요? 가장 강인한 남자조차 연약한 소녀의 눈물을 흘리게 할 무한한 방법들,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당신은 영원히 불타 오르며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보니히는 그것들을 훑어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바닥에서 성경책들을 주워 들었다. 그는 그것을 입맞추고는 성큼성큼 연단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그것을 탁자에 내리쳤고, 그의 분노가 성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반은 자신의 고백이 라자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확신했고, 의롭고 보호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본능에 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반이 내면의 새로운 악마, 즉 자신이 두 번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동안, 수도원장의 계속되는 고향 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으로 바뀌었다.

기괴한 모습, 마치 두 번째 나사로 같았고,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다. 그는 턱을 굳게 다물고 발 밑의 돌바닥을 응시했다.

이반은 수도원장이 이마의 땀을 찰싹 때리며 고향을 지르자 깜짝 놀랐다. "우리 가운데 빈둥거리는 자들이 있군! 이제 그들이 다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수도원에 새 종탑을 짓게 될 테니까!" 수도원장은 고개를 들어 성당 날개의 어두컴컴한 위쪽을 훑어보았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비전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것은 더 높고 더 깊을 것이다. 밑부분은 꼭대기보다 더 넓고, 천 명의 그로테스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테라스가 있을 것이다. 첫째, 햇빛. 탑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이 돌로 된 악마들에게 해가 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탑은 구름을 뚫을 것이다. 둘째, 신성한 땅. 너희 중 한 명은 그 안에 갇히게 될 것이다."

탑에 올라가 항상 기도하고, 남은 생애 동안 속죄의 표시로 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탑은 우리 성당보다 더 신성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물리치기 위해 탑을 둥글게 만들어 너희의 혐오스러운 형상들이 사방을 향하게 하겠다. 악마는 세상의 모든 언덕과 골짜기에서 너희의 돌로 만든 기괴한 형상들을 보고 이 땅을 두려워할 것이다. 자, 너희는 내게 건축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 탑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직접 보여주세요. 직접 지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끼익!" 두 수도사가 괴물과 씨름하는 동안 괴물은 몸부림쳤다. 이반은 이를 악물었다.

"일어나라!" 보니히가 외쳤다. 수도사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이 기괴한 형상은 새벽녘에 햇볕에 노출되어 돌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저는 그것을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의 칸첼로 로 옮겨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도밍구스 수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관할 구역 에서 태어난 모든 그로테스크는 이곳으로 수도원이 보내질 것이다 .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와 이탈리아 형제 들의 죄 를 짊어질 것이다.”

“목욕탕으로!” 보니히가 고함을 질렀다. “목욕탕 기둥 중 하나에 묶어 놓고 내일까지 철저히 감시해라.” 그는 손을 짧게 흔들어 두 수도사를 내보냈고, 그들은 발버둥 치는 그로테스크를 교회 밖으로 옮겼다. 보니히는 다시 수도사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너희도 잘 알다시피, 오늘 아침 우리가 그로테스크를 발견했으니 , 이 육체적 결합은 분명 어젯밤에 일어났을 것이다. 너희 중 누구도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는 ”

각자 자기 휘하의 사제들과 시종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이 악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낸다면, 즉시 내게 보고하라. 그리고 이 회의는 하급 평의회 수도사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굳이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지. 평의회에 관한 사항을 발설하거나 문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니히는 연단을 내리치며 말했다. “내 수도원을 되찾겠다!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평의회 수도사들은 일제히 돌아서서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자 수도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줄의 맨 마지막 순서였던 이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보니히가 그를 향해 "이반 수사님!" 하고 외쳤다. 이반은 몸이 굳어지며 천천히 몸을 돌렸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수도원장님?”

“고백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그 순간은 마치 며칠처럼 길게 느껴졌다.

"수도원장님은 안 계십니다."

"정말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보니히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부인하는 겁니까? 당신의 지하 묘지에 쥐가 있다는 것들요?"

"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보니히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세 번째로 물었다.

"내 수도사들이 당신의 축복받은 지하묘지 시종 소년처럼 자신들의 의무를 명확히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예, 주지 스님.” 이반이 대답했다.

"그 아이를 곧 다시 찾아뵙게 되어야겠군요. 라자루스 맞죠?"

"그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기도와 참회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관대하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반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라자로는 당신이 맡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 힘든 날에는 시종 한두 명을 더 보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필요한 노동 교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묘지 작업에 라자루스 기사와 오디노 수사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셋이면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원장님."

"안타깝군. 그 녀석의 처지가. 불쌍한 아이로군." 보니히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이반에게 작별 인사로 성경 말씀을 전했다. "진실로 너희 가 내 백성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주지 스님."

그들은 눈을 살폈다.

보니히는 몸을 돌려 성당 내부를 살펴보았다. 그가 응시 하고 있는 곳 은 바로 방금 발견된 살아 있는 그로테스크가 있는 방향이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턱이 굳어졌다. "가도 좋다."

이반은 고개를 숙이고는 새로 알게 된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채 성당 밖으로 서둘러 나갔다.

[3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